



1 베틀바위 산성길의 단풍 2 도깨비굴 스카이벨리·해랑전망대 3 무릉별유천지 전경

“위드 코로나 시작”...동해시 불거리 풍성해진 새 명소로 각광

단풍과 절경을 펼쳐내면서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인 후난성 장자제가 부럽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풍철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단풍이 물든 지난 10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등산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6월 개장한 목호 도깨비굴 스카이벨리와 해랑전망대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 비탈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화 관광지로 조성한 이곳에는 해발 590m 공중에 떠 있는 스카이워크(하늘산책로)와 하늘 자전거, 대형 미끄럼틀 등이 있다. 길이 85m의 해랑전망대는 옥빛 동해로 뻗어나가 넘실대는 파도 위에 설치해 스카이워크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무릉별유천지·망상캠핑리조트 개장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를 복합체험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무릉별유천지’가 지난 11월 16일 개장했다. 알파인 코스트와 롤러코스터, 오프로드 루지, 집라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석회석 돌밭 위에는 라벤더 정원을 조성했다. 또 거대한 계단처럼 남겨진 석회암 절벽에는 폐광지와 호수 등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도 갖췄다. 석회석을 캐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심 25m의 에메랄드빛 호수와 요새 같은 절벽에 더해 쇄석장, 이송 컨베이어 등 근대 산업 유산도 볼거리다. 아울러 2019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소실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30개 동 46실을 신축하고 4개 동을 보수했다. 불에 탄 해송과 소나무 1천700여 그루를 심고 해안 산책로와 물놀이장을 갖추는 등 새로운 관광시설로 탈바꿈했다. ❶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강원 동해시가 불거리가 풍성해진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삼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동해시가 ‘안심’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관광 전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장자제 부럽지 않은 목호항 주변 비탈면의 변신

시가 1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순환 등산로 코스인 베틀바위 산성길과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단풍철을 맞아 인기를 끌었다. 베틀바위를 시작으로 수도굴, 박달령 입구, 용추폭포로 연결되는 5.34km 구간으로, 신비로운 협곡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기암괴석이



2



3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동해동파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11월 16일 GRAND OPEN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오프로드 루지